

한국 정서표현성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홍창희*
국립나주병원

한규석
전남대학교

본 연구는 한국 성인의 정서표현에 관한 구성개념을 탐색하고 그에 따른 척도를 구성하여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일상생활에서 정서표현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토대로 예비문항들을 선정한 후, 대학생 356명에게 문항 적절성을 평정케 하여 최종 16문항을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16문항의 예비척도를 대학생 258명과 일반인 105명에게 실시한 자료를 요인분석하여 16문항의 정서표현성척도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정서표현성척도는 내적 합치도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높았고, 학생 및 일반집단 모두에서 일관되게 '활동성', '연민과 인정', '표현성'의 3요인구조가 나타났다. 다른 정서표현성척도 및 성격특성 등과 높은 상관을 보여 척도의 구성타당도가 입증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임상적 의의 및 제한점을 논의하였고, 추후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정서표현, 정서표현성, 요인분석

정서를 잘 이해하고 표현하는 일은 원만한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중요하다. 어떤 개인은 정서를 별로 드러내지 않는 반면, 어떤 개인은 끊임없이 정서적인 표현을 하기도 한다. 최근 청소년이나 성인의 충동통제나 감정조절 등 정서영역에서의 문제가 자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이러한 정서조절의 실패는 심리적 장애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APA, 1994)의 축 I 및 축 II 장애에는 정서조절실패의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주요우울장애는 정적 정서(positive affect)의 결핍이나 부적 정서(negative affect)의 과잉을 나타내고, 정신분열병은 부적절한 정서적 반응 혹은 둔화된 정서(blunted affect)를 드러낸다. 또한 경계성 인격장애는 극단적인 기분변화에 따르는 심한 정서적 불안정을, 연기

성 인격장애는 지나친 정서성을 드러낸다. 이렇듯 정신건강이나 적응에 있어서 정서표현이나 정서조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서가 어떻게 경험되고 표현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Tomkins(1981)가 정서 자체의 독립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 이래, 정서 표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King & Emmons, 1990; Kring, Smith, & Neale, 1994; Gross & John, 1997, 1998; Gross, John, & Richards, 2000). 구체적 정서표현과 심리적 안녕감(Gross 등, 1997; Kring & Neale, 1996), 정서표현 역제의 급성 효과(Gross & Levenson, 1997), 정서표현과 건강(Ewart & Kolodner, 1994), 정서경험과 정서표현간의 해리(Gross 등, 2000), 정서표현이 정서경험에 미치는 효과

* 본 연구는 제1저자의 박사학위논문(2003)의 일부를 요약 및 확장한 것임

† 교신저자 : 홍창희, (520-830) 전남 나주시 산포면 산재리 501 국립나주정신병원, 전화 : 061) 330-4157,
E-mail : wana1020@hanmail.net

(Flack, Laird, & Cavallalo, 1999), 정서표현과 심리적 및 신체적 안녕감(Rivkin, 2000) 등의 연구가 있다.

특히 Gross(1995, 1998)는 정서경험과 정서표현행동 관계에 관한 정서과정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정서는 내·외적 정서단서의 평가로 시작되어, 적응적 행동을 촉진하도록 짜 맞추어진 정서반응경향성(emotion response tendencies)인 정서경험이 유발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정서경험은 억제나 과장을 통해 조절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행위인 정서표현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정서과정모델이 정서적 반응의 모든 측면을 나타내주는 것은 아니지만, 정서경험과 정서표현행동과의 관계는 정서반응경향성과 이를 표현하는데 나타나는 개인차인 정서표현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Gross & John, 1998, Gross 등, 2000).

정서표현과 정서표현성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서성(emotionality)이란 정적 혹은 중립적 정서상태에서 부적 정서상태로의 변화나, 또는 일반적으로 정적 및 부적 정서를 경험하는 성향을 일컫는다(Buss & Plomin, 1975; Tellegen, 1985; Tellegen, Lykken, Bouchard, Wilcox, & Rich, 1988). 이와 달리 정서표현(emotional expressiveness)은 경험하는 정서의 외적인 표현을 말한다. 이 정서표현과 관련된 개인의 성향과 능력은 최근 정서지능의 논의들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주제이며(Salovey, Mayer, Goldman, Turvey, & Palfai, 1995), 정서표현에 대한 연구는 특성적으로 정서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분석하는 방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Allport와 Vernon(1933)은 정서표현성(emotional expressivity)을 개인들을 변별할 수 있을 정도로 드러나는 행동측면이라고 정의하고, 표현행동의 일관성을 분석하는 것이 성격이해의 첫 단계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초기 연구에서 일반적인 표현성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고, 표현성의 보다 구체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

1970년대 초기에 이르러서야 정서표현에 있어서 개인차인 정서표현성(emotional expressivity)의 연구는 시작되었고(Buck, Savin, Miller, & Caul, 1972; Snyder, 1974), 동시에 정서의 안면표현(facial expression)연구도 진행되었다(Ekman, Friesen, & Ellsworth, 1972; Izard,

1971). 초기의 연구자들은 정서표현성을 외적 표현여부의 단일차원으로 보기도 하였으나, 점차 다차원적인 증거가 제시되었다(Halberstadt, Cassidy, Stifter, Parke, & Fox, 1995; King 등, 1990).

성격 특성으로서 정서표현성을 측정하려는 시도는 King과 Emmons(1990)에 의해 처음 이루어졌다. 그들은 정서표현성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16문항의 정서표현성질문지(Emotional Expressivity Questionnaire; EEQ)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부적정서 표현, 정적정서 표현 및 친밀감 표현의 세 요인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Kring, Smith와 Neale(1994)은 정서를 밖으로 표출하는 것을 정서표현성으로 정의하고 표현의 내용도 정적요소나 부적 요소에 상관 없이, 표현양식 또한 얼굴표정, 음성표현, 제스처에 의한 표현 등 다양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서표현영역에서 40문항을 표집해 척도를 구성한 후 정서표현성의 정의에 잘 부합되는 문항들을 선정하여 17문항의 정서표현성척도(Emotional Expressivity Scale; EES)를 개발하였다. Kring 등(1994)은 정서표현성을 단일차원의 구성개념으로 정의하였지만, 최근의 정서표현성 개념은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Gross와 John(1995)은 정서표현성의 위계적 관점을 제안하였다. 그들은 이론적으로 정서표현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되는 22문항을 미리 선정한 후 요인분석을 통해 정적 정서표현성, 부적 정서표현성 및 충동강도의 3요인으로 구성된 버클리 표현성척도(Berkley Expressivity Questionnaire; BEQ)를 개발하였다. 또한 Gross와 John(1998)은 자신들의 정서표현성척도(BEQ)와 다른 정서표현성 척도들(King 등, 1990; Kring 등, 1994)의 문항을 포함시켜 요인분석을 통해 정적 정서표현성, 부적 정서표현성, 충동강도, 표현자신감 등의 4요인을 밝혀냈다. 이들의 연구에서(Gross 등, 1997, 1998) 정적 정서표현성과 부적 정서표현성의 두 요소는 .50의 정적상관을 보이지만 변별타당도를 보여주었다. 예로, BEQ의 부적 표현성척도는 실험실 상황의 관찰에서 정적 정서표현보다는 부적 정서표현을 더 잘 예언해주어 정서표현성은 겉으로 드러나는 정서표현의 좋은 예언변인임을 나타내 주었다.

한편 개인이 경험하고 표현하는 정서는 문화적 영향을 받게 되며, 문화에 따라 정서분류체계가 달라진다는 정서의 문화차를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다(Markus &

Kitayama, 1991, 1994). 같은 정서경험의 내용이라도 문화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으며, 정서를 경험하고 표현하는 방식도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안신호, 이승혜, 및 권오식(1993, 1994)은 대학생들의 정서의 인지구조와 체험구조가 모두 부적 정서에 과도하게 민감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비에'나 '연민' 차원의 특징적인 정서경험의 내용을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호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관계지향적인 문화로 볼 수 있어 평소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다(한규석, 2001). 본 연구자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서표현을 잘 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알아 본 개방형 질문의 예비조사 결과에서도, 정서표현의 개념에는 '배려', '인정', '연민', '측은' 등의 특징이 상당부분 나타났다. 그러한 문항의 예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안다', '인정이 많다', '연민이나 동정을 많이 느낀다', '어려운 사람을 측은하게 여긴다' 등으로, 외국의 척도와는 다른 구성요소를 지닐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홍창희(미발표)는 Gross와 John(1995)이 개발한 BEQ의 요인구조가 우리나라 대학생들(남 78명; 35.3%, 여 143명; 64.7%)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보았다. Gross 등(1995)의 연구에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결과 3요인이 확인되어 본 연구에서도 3요인을 추출하는 주성분분석하였고, 또한 그들의 연구에서 요인간 상호상관이 평균 .52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사각회전방식을 택하였다. BEQ의 요인분석 결과를 부록1에 제시하였다. 아울러 번안되어 사용되고 있는 다른 정서표현성 척도(EEQ, EES)와의 관계 및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표현행동을 통제하고 감찰하는 정도를 알아보는 자기검색척도(SMS)와의 관계도 알아보았다.

Gross 등(1995) 연구에서 요인1은 정적 표현성, 요인2는 부적 표현성, 요인3은 충동강도로 나타났다. 한편 홍창희연구(미발표)에서 요인1은 '내가 느끼는 것은 모두 얼굴에 나타난다', '내가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때면 언제든지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그대로 쉽게 알 수 있다', '내가 부정적인 정서를 느낄 때면 언제든지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그대로 쉽게 알 수 있다' 등 7개 문항이 높게 부하되었으며, 정적 및 부적 표현성을 포함한 '표현성요인'으로 해석되었다. 요인2는 '나는

분노를 드러내기보다는 억제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등의 3개 문항이 높게 부하되었고 '억제요인'으로 해석되었다. 요인3은 '나는 강한 정서를 지니고 있다', '난 매우 강하게 정서를 경험한다' 등 6개 문항이 높게 부하되었고, '충동강도요인'으로 해석이 가능하였다. 특히 요인2(억제)에 해당하는 세 문항('제아무리 흥분하거나 당혹스러울지라도 난 겉으로 침착함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분노를 드러내기보다는 억제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은 원래 Gross 등의 연구에서는 부적 표현성 요인에 포함되었고, 1 문항('사람들은 종종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모른다')은 충동강도 요인에 포함되었던 문항이다. 일반적으로 요인분석은 요인구조가 표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번안된 원래 척도의 요인구조가 표본특성 때문에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겠으나, 그 보다는 '부적 표현성'('제아무리 흥분하거나 당혹스러울지라도 난 겉으로 침착함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분노를 드러내기보다는 억제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을 '억제'로 해석하는 문화적 차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BEQ와 다른 정서표현성 척도와와의 관계는 유의한 정적 상관(EES와 .68, EEQ와 .69)을, SMS와는 .09의 상관을 보였다. 아울러 BEQ의 요인1(표현성)과 요인3(충동강도)은 EES, EEQ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SMS와는 무관하였다. 한편 요인2(억제)는 다른 정서표현성척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인상을 주기 위해 자신의 표현행동을 통제하고 감찰하는 정도에서 개인차를 드러내는 SMS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BEQ의 연구에서 드러난 이러한 차이점 외에, 외국의 척도를 번안해 타당화한 후 사용할 경우 편리한 이점도 있겠으나 제한점이 있어 보인다. 예로 Courtald 정서통제척도(Watson & Clark, 1991)는 단지 부적 정서표현의 통제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기검색척도(Snyder & Gangerstad, 1986)는 사회적 단서에 대한 표현행동의 반응성을 측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서표현성을 평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더불어 한국인의 정서이해를 위한 시론(조궁호, 1997)에서 개관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경향이 강한테 동정이나 공감 같은 타인중심적 정서표현은 권장되지만, 자부심이나 분노 같은 자기중심

적 정서표현은 적극적으로 억제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외국의 척도와는 다른 구성요소를 지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개발된 정서척도를 국내에 적용하고자 할 경우 단어선택 및 번안의 고려가 필요하고 연구자의 연구 목적과 상황에 적절한 정서단어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즉 자신들이 사용하는 정서단어나 정서의 구성개념에 비추어 정서를 측정할 때 보다 더 적절히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1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서표현에 관한 구성개념을 탐색하고 그에 따라 정서표현성척도를 구성하여 척도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고, 연구2에서는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1 : 정서표현성척도의 제작

정서표현성척도의 제작은 다양한 정서의 일반적인 표현성을 알아보고자, Kring, Smith, & Neale(1994)과 마찬가지로 정서의 형태(예, 행복, 슬픔 등)나 표현되는 방식(예, 얼굴, 몸짓 등)에 관한 사전의 가정을 두지 않았다. 구체적인 지시나 미리 표집한 문항들을 제시하기보다는 연구 참여자의 정서표현에 관한 암묵적인 개념에 따라 문항을 추출하고 선택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정서표현성을 알아보는 예비질문지를 대학생 139명(남 57명; 41.0%, 여 82명; 59.0%)에게 실시하였고 이들의 평균나이(표준편차)는 남자 22.7세(2.46), 여자 20.9세(1.81)이었다. 선정된 예비 목록을 평정하기 위한 질문지를 대학생 356명(남 102명; 28.7%, 여 254명; 71.3%)에게 실시하였고, 이들의 평균나이는 남자 21.2세(2.32), 여자 20.4세(1.70)이었다.

절차

연구1에서 사용한 예비질문지는 정서표현에 관한 응답자들의 평소 생각을 도출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지시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정서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특징’을 알아보는 개방형 질문이었다.

응답자들이 열거한 특징들을 내용분석하여 응답된 특징 중 최소 두 명 이상에 의해 언급된 특징만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특징 중 내용이 비슷한 특징들은 연구자와 심리학 박사과정 2인의 의견이 일치된 경우 하나의 특징으로 간주하여 목록을 정리하였다. 139명의 개방형 설문 결과, 총 97개 문항 중 56개 문항을 정서표현성척도의 예비목록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56개 예비목록을 대학생 356명에게 각각의 문항 특성이 정서표현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얼마나 잘 나타내주는지를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 7 : 매우 그렇다)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평정된 56 문항 예비목록의 일차적인 문항분석 결과 모든 문항의 문항-총점간 상관이 적어도 .30 이상이고 평균도 3.5 ~ 5.0 사이로 통계적인 문항분석과정에서 문항을 제거하지는 않았다.

정서표현성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56문항의 예비목록을 탐색적 요인분석하였다. 요인추출방법은 주축분해(principal axis method) 요인회전은 사각회전(oblimin)하였으며, scree검사 결과, 고유치 1.0이상인 요인의 수가 12개가 추출되었다. 12개 요인 중 처음 4개 요인에 많은 문항들이 포함되고, 또한 고유치의 하락정도 및 해석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4개의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결과를 근거로 요인수를 4개로 지정하여 요인분석하였다. 그 결과 4번째 요인의 경우, 정서표현에 관한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의미가 심미적(aesthetic)이거나 감성적(sensual)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어(예, 예술에 관심이 많다, 자연을 즐긴다 등), 4번째 요인에 부하된 문항들을 제외시켰다. 또한 다른 3개의 요인에 부하된 문항들 중 요인부하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항 및 다른 요인에도 비슷한 요인부하량을 지니는 순수하지 못한 문항 등 27문항을 제외한 총 29문항을 선정하였다. 29문항을 대상으로 보다 단순한 문항 추출과 요인해석의 간명성(parsimony)을 위해, 요인분석을 반복한 결과 scree검사 및 요인부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3개의 요인이 일관되게 나타나 최종 16문항을 선정하였다.

결 과

정서표현성척도의 요인구조

예비목록의 문항 특성이 정서표현을 잘하는 사람의 특

표 1. 정서표현성척도의 요인구조

문	항	요인1	요인2	요인3
모임에서 나는 눈에 잘 띄는 편이다		.769	8.896E-02	.113
나는 평소 활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760	7.737E-02	7.464E-02
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활발하다		.752	.202	-6.000E-02
나는 유머감각이 있다고 생각한다		.748	8.942E-02	-6.043E-02
나는 어떤 상황에서나 자신감 있게 행동한다		.728	6.215E-02	.111
나는 얼굴표정이 밝다		.664	.213	2.100E-02
나는 친구가 많다		.655	.219	1.881E-02
나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져도 잘 표현할 수 있다		.650	.196	.232
나는 성격이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다(-)		-.618	-.268	.142
누군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면 연민이나 동정심을 많이 느낀다		-7.256E-02	.798	.101
사람들은 내가 인정이 많다고 말한다		9.273E-02	.776	-.102
나는 대인관계에서 정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는다		.160	.625	8.963E-02
나는 다른 사람의 얼굴표정을 보고 그 사람의 기분을 잘 파악한다		.240	.589	3.881E-02
나는 감정을 감추지 못하는 편이다		1.983E-02	7.953E-02	.825
나는 느끼는 감정의 표현을 억제하지 않는다		9.948E-02	1.190E-02	.807
내가 느끼는 점은 얼굴표정이나 행동으로 잘 나타난다		.133	1.873E-02	.762
요인고유가		4.62	2.26	2.05
설명변량(%)		31.91	12.15	11.74
신뢰도(전체=.84**)		.88**	.69**	.74**

** $p < .01$, $N = 356$

주1. 요인1 : 활동성, 요인2 : 연민과 인정, 요인3 : 표현성

주2. (-)는 역재점 문항임

정을 얼마나 잘 나타내주는지를 7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여 최종 선정된 16문항 정서표현성척도의 요인구조, 설명변량 및 척도의 내적 합치도를 제시한 것이 표1이다. 표1을 보면, 요인1은 ‘모임에서 나는 눈에 잘 띄는 편이다’, ‘나는 평소 활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활발하다’, ‘나는 얼굴표정이 밝다’, ‘나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져도 잘 표현할 수 있다’ 등의 문항으로 일상의 관계에서 눈에 잘 띄고 활동적이며 외현적인 특징 등으로 ‘활동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2는 ‘누군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면 연민이나 동정심을 많이 느낀다’, ‘사람들은 내가 인정이 많다고 말한다’, ‘나는 대인관계에서 정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는다’ 등의 문항으로 다정하고 인정이 많고 배려하는 특징 등으로 ‘연민과 인정’으로 명명하였다. 요인3은 ‘나는 감정을 감추지 못하는 편이다’, ‘나는 느끼는 감정의 표현을 억제하지 않는다’, ‘내가 느끼는 점은 얼굴표정이나 행동으로 잘 나타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감정표현을 감추지 않고 느끼는 그대로 잘 드러내는 특

징 등 ‘표현성’으로 명명하였다.

연구 2 : 정서표현성척도의 타당화

연구1에서 제작된 정서표현성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학생집단과 일반집단을 대상으로 척도의 문항-총점 상관, 내적 합치도,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알아보았다. 또한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대상자 및 동료평정자 자료에서도 동일한 요인구조가 나타나는지 알아보았고, 기존의 정서표현성을 측정하는 다른 척도들(BEQ, EES, EPQ)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방 법

연구대상

대학생 258명(남 92명; 35.5%, 여 166명; 64.5%)과, 일반인 105명(남 49명; 46.7%, 여 56명; 53.3%)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학생의 평균나이(표준편차)는 남자 23.6

세(3.54), 여자 20.3세(2.09)이었고, 일반인의 경우는 연구 당시 두 곳의 국립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남자 40.1세(7.75), 여자 37.4세(5.66)이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편의상 대학과 기관 한 곳을 선정해 연구대상의 일부(대학생 103명, 일반인 63명)를 대상으로 4주 간격으로 실시하였다.

측정도구

정서표현성척도

이 척도는 정서표현의 개인차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1에서 제작한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해 자신과 일치하는 정도나 동의하는 정도를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7 : 전적으로 그렇다)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표현성의 정도가 많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전체척도 .84, 각 요인별 내적 합치도는 요인1=.88, 요인2=.69, 요인3=.74이었다.

동료평정 정서표현성척도

이 척도는 본 연구의 정서표현성척도를 동료가 연구참여자자의 정서표현 정도를 평정하도록 재구성한 것이다. 즉 1인칭을 3인칭으로 바꾸어, 예로 '모임에서 나는 눈에 잘 띄는 편이다'의 문항은 '그는 모임에서 눈에 잘 띄는 편이다'의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타인평정척도는 다른 사람의 정서표현행동이나 정서인식에 평정척도가 얼마나 유용한지 알아보고, 또한 정서의 외적인 표현인 정서표현성이 실험실 상황이 아닌 일상에서 외적 타당도를 지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동료가 평정하는 척도가 외적타당도를 갖는다면 평정척도자료의 요인구조가 자기보고형척도 자료와 유사한 요인구조를 지닐 것으로 기대된다.

버클리 정서표현성척도(Berkeley Expressivity Questionnaire; BEQ)

이 척도는 Gross와 John(1995)이 정서표현성의 개인차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16문항의 자기보고형 질문지로 정적 표현성, 부적 표현성 및 충동강도의 세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원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전체 .86. 각 요인별 내적 합치도는 각각 .71, .74, .78이었다. 홍창희연구(미발표)에서 전체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1이었다.

정서표현성척도(Emotional Expressivity Scale; EES)

이 척도는 Kring, Smith와 Neale(1994)이 제작한 척도로서 단일차원의 일반적인 정서표현성의 개인차를 측정하는 17문항의 자기보고형 질문지이다. 6점 척도상(1 : 매우 다르다~6 : 매우 유사하다)에 평정하게 되어있고 일반적인 정서표현성을 평가하는 단일차원 척도이다(예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서를 드러낸다, 사람들은 내 정서를 쉽게 읽을 수 있다 등). Kring 등(1994)은 이 척도가 정서표현행동의 사회적 의사소통과 타인의 정서감지에 유용한 척도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정원(1997)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2였다.

정서표현행동의 자기평정

이 질문지는 자신이 평소 정적 정서(즐거움, 기쁨, 행복감) 표현행동과 부적 정서(분노, 슬픔, 두려움) 표현행동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 어느 정도 드러내는지를 7점 척도(1 : 매우 적게~7 : 매우 많이)로 평정하게 한 것이다. 자료분석은 두 정서표현행동 영역 각각의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정적 정서표현행동의 내적 합치도는 .65, 부적 정서표현행동은 .66이었다.

아이젠크 성격검사(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EPQ)

이 검사는 Eysenck와 Eysenck(1975)가 제작한 정신병적 경향성(psychoticism; P), 외향성-내향성(extroversion-introversion; E) 그리고 신경증적 경향성(neuroticism; N)의 성격차원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한국판 아이젠크 성격검사(이현수, 1985)는 1부, 2부, 3부로 구성되어 있고, 2부는 1부의 단축형으로 4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부는 충동성검사로써 충동성, 모험성, 감정이입의 성격특성을 측정하는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표현성과 성격특성으로서 외향성 및 정서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2부의 외-내향성, 신경증적 경향성 척도를 사용하였고, 감정이입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3부의 감정이입척도를 포함하였다. 정서표현성이 높은 개인의 경우 외향성향과 정서성 및 감정이입의 정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79, .78, .65,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각각 .90, .87, .65이

었다(이현수, 2000).

결 과

절차

동료평정 정서표현성척도를 제외한 모든 질문지는 소책자로 구성하여 대학생 집단은 집단으로 실시되었고, 일반집단은 개별적으로 실시되었다. 질문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분 정도였다. 동료평정 정서표현성척도는 연구 참여자와의 관계, 알고 지낸 기간 등을 묻는 문항과 함께 질문지가 담긴 미리 준비된 봉투를 각 참여자에게 나누어주고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주도록 하였다. 동료평정의 특정대상을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예비조사에서 대학생집단의 경우 대부분 과동료나 친구를 지정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혹 자신에 대한 친구의 평정을 꺼려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자료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의도도 포함되었다. 평정자는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연구 참여자가 해당 문항에 일치하는 정도를 7점 척도(1 : 전혀 아니다~7 : 매우 그렇다)에 평정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정서표현행동을 평정한 후 연구자에게 직접 우송하도록 하였다. 총 200부 중 143부가 회수되었다. 동료평정자는 친구가 132명(92.3%)으로 대부분이었으며, 가족은 11명(7.7%)이었다. 가족을 제외한 동료평정자가 평정대상자와 알고 지낸 기간은 평균 2.6년(표준편차 1.65)이었다.

본 연구1에서 제작된 정서표현성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척도의 내적 합치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문항-총점간 상관을 알아보았고, 요인분석 및 정서표현성을 측정하는 다른 척도들(BEQ, EES, EPQ)과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정서표현성척도의 신뢰도

정서표현성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대학생의 경우 전체 척도는 .88이었고, 문항-총점 상관은 .30~.75의 범위에 있었다. 일반인의 경우는 전체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5이고, 문항-총점간 전반적으로 .30~.71이었다(표2).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r)는 대학생의 경우 전체척도 .90, 각 요인별 신뢰도는 요인1=.88, 요인2=.84, 요인3=.81 이었다. 일반인의 경우는 전체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2이었고, 각 요인별 신뢰도는 요인1=.90, 요인2=.87, 요인3=.85이었다.

정서표현성척도의 타당도

정서표현성척도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학생집단과 일반집단 및 동료평정 결과를 요인분석(최대우도, 사각회전)한 것이 표 3이다. 표 3의 정서표현성척도의

표 2. 정서표현성척도의 문항 변별도

문 항	문항-총점간 상관	평 균	표준편차
1. 모임에서 나는 눈에 잘 띄는 편이다	.57	3.62	1.28
2. 나는 얼굴표정이 밝다	.53	4.41	1.33
3. 누군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면 연민이나 동정심을 많이 느낀다	.49	5.22	1.26
4. 나는 평소 활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71	4.25	1.42
5. 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활발하다	.68	4.53	1.24
6. 나는 유머감각이 있다고 생각한다	.60	3.99	1.36
7. 나는 어떤 상황에서나 자신감 있게 행동한다	.68	3.82	1.25
8. 나는 감정을 감추지 못하는 편이다	.34	4.22	1.44
9. 나는 성격이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다	.35	4.08	1.53
10. 내가 느끼는 점은 얼굴표정이나 행동으로 잘 나타난다	.30	4.73	1.32
11. 사람들은 내가 인정이 많다고 말한다	.47	4.76	1.33
12. 나는 느끼는 감정의 표현을 억제하지 않는다	.32	3.84	1.37
13. 나는 친구가 많다	.62	4.25	1.19
14. 나는 대인관계에서 정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는다	.46	5.06	1.31
15. 나는 다른 사람의 얼굴표정을 보고 그 사람의 기분을 잘 파악한다	.48	4.76	1.91
16. 나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져도 잘 표현할 수 있다	.58	3.97	1.22

표 3. 정서표현성척도의 요인구조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대학	동료	일반	대학	동료	일반	대학	동료	일반
4. 나는 평소 활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78	.83	.77						
6. 나는 유머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78	.72	.57						
7. 나는 어떤 상황에서나 자신감 있게 행동한다	.75	.39	.75						
9. 나는 성격이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다(-)	.72	.74	.76						
1. 모임에서 나는 눈에 잘 띄는 편이다	.71	.75	.60						
5. 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활발하다	.71	.71	.34						
16. 나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져도 잘 표현할 수 있다	.62	.35	.63						.71
2. 나는 얼굴표정이 밝다	.55	.61	.38						
13. 나는 친구가 많다	.54	.58	.40						.65
14. 나는 대인관계에서 정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는다				.83	.83	.55			
11. 사람들은 내가 인정이 많다고 말한다				.75	.74	.57			
3. 누군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면 연민이나 동정심을 많이 느낀다				.71	.75	.56			
15. 나는 다른 사람의 얼굴표정을 보고 그 사람의 기분을 잘 파악한다				.58	.62	.49			
8. 나는 감정을 감추지 못하는 편이다							.85	.83	.79
10. 내가 느끼는 점은 얼굴표정이나 행동으로 잘 나타난다							.81	.87	.68
12. 나는 느끼는 감정의 표현을 억제하지 않는다							.76	.84	.74
요인고유가	5.44/4.81/5.13			1.87/2.46/2.21			1.53/ 1.94/1.49		
설명변량(전체 60.4/57.6/55.1%)	38.2 /30.1/32.0			12.2 /15.4/13.8			10.1/12.1/ 9.30		
신뢰도(전체=.88/.71/.85)	.89/.69/.85			.76/.75/.68			.76/.81/.74		
상호상관									
요인1									
요인2	.53**/.46**/.47**								
요인3	.23**/.23*/.20*			.24**/.18/.38**					
전체	.92**/.87**/.90**			.74**/.69**/.74**			.51**/.58**/.52		

* $p < .05$, ** $p < .01$

- 주 1. 요인1; 활동성, 요인2; 연민과 인정, 요인3; 표현성
- 2. 요인계수가 .30 이상만 제시하였음
- 3. (-)는 역채점 문항임

요인구조를 보면, 대학생집단과 동료평정 및 일반집단의 척도의 요인구조가 매우 유사하다. 단 일반집단의 요인2의 경우는 다른 집단의 요인1의 두 문항(문항5 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활발하다, 문항13 나는 친구가 많다)이 요인2에도 높은 요인부하를 보였다. 대학생집단의 경우, 세 요인이 전체변량의 60.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요인을 보면 요인1은 38.2%, 요인2는 12.2%, 요인3은 10.1%를 설명하였다.

다른 척도와의 상관

정서표현성의 개인차를 측정하는 다른 정서표현성척도 및 정서표현행동의 자기평정과 상관계수를 나타낸 것이 표 4이다.

표 4에 의하면, 대학생집단의 경우 정서표현성척도와 이 척도의 각 요인 모두 BEQ와 EES 및 정적 정서(즐거움, 기쁨, 행복감) 표현행동의 자기평정간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한편 부적 정서(분노, 슬픔, 두려움) 표현행동의 자기평정과 요인1(활동성)은 부적 상관을, 요인3(표현성)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아이젠크 성격검사와의 상관을 보면, 정서표현성척도와 척도의 각 요인 모두가 외-내향성 차원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정서표현성척도와 요인1(활동성), 요인2(연민과 인정)는 신경증적 경향성 차원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요인3(표현성)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감정입적척도와 요인2(연민과 인정)와 요인3(표현성)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동료가 평정한 정서표현성척도의 경우, 척도

표 4. 정서표현성척도의 타당도 평가에 사용된 검사간 상관행렬

척도	BEQ	EES	SR-P	SR-N	EPQ-EX	EPQ-NE	EPQ-EM
대학생(N=257)							
정서표현성척도 전체	.57**	.44**	.62**	.12	.62**	-.30**	.09
요인1	.38**	.34**	.60**	-.17*	.70**	-.38**	.01
요인2	.39**	.19*	.39**	-.03	.29**	-.25**	.14*
요인3	.68**	.54**	.31**	.39**	.17**	.14*	.15*
동료(N=143)							
정서표현성척도 전체	.18*	.19*	.36**	-.42**	.37**	-.40**	.04
요인1	.15	.15	.31**	-.49**	.41**	-.49**	-.02
요인2	.06	.02	.22*	.01	.16	-.21*	.14
요인3	.16	.23*	.26**	.35**	.25**	-.04	.02
일반인(N=105)							
정서표현성척도 전체	.33**	.45**	.01	-.10			
요인1	.21*	.35**	.08	-.22*			
요인2	.21*	.25**	.11	-.09			
요인3	.58**	.46**	.09	.30**			

* $p < .05$, ** $p < .01$

주1. 요인1; 활동성, 요인2; 연민과 인정, 요인3; 표현성

BEQ : 정서표현성척도(Gross 등)

EES : 정서표현성척도(Kring 등)

SR-P : 정서표현행동의 자기평정- 정적

SR-N : 정서표현행동의 자기평정- 부정

EPQ-EX : 아이젠크성격검사- 외향성 내향성차원

EPQ-NE : 아이젠크성격검사- 신경증적 경향성차원

EPQ-EM : 아이젠크성격검사- 감정이입차원

전체는 BEQ 및 EES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정서표현행동(정적, 부정)의 자기평정간 상관은 대학생집단과 유사한 양상이다. 아이젠크 성격검사와의 상관의 경우도 대학생집단과 유사하나, 요인2와 요인3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 특히 요인3은 EPQ의 신경증적 경향성 및 감정이입척도와 상관에 유의하지 않았다.

일반집단의 경우에도 정서표현성척도와 척도의 각 요인 모두 BEQ 및 EES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정서표현성척도와 즐거움이나 기쁨 같은 정적인 정서표현행동의 자기평정간 상관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부정적인 정서표현행동의 자기평정과 요인1(활동성)은 유의미한 부정 상관을, 요인3(표현성)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논 의

우리의 삶은 지(知)·정(情)·의(意)의 연속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정서는 인지 및 동기와 마찬가지로 인간

의 행동을 활성화시키고 적응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정서영역의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 활성화되고 있는 양상이며, 특히 정신건강이나 일상의 적응에 있어서 정서조절이나 표현의 중요성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정서가 어떻게 경험되고 표현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부족한 편이고, 연구에 사용되는 정서관련척도는 대부분 외국의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함으로써 국내의 성인을 연구대상으로 한 정서척도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정서표현에 관한 구성개념을 탐색하여 척도를 구성하고, 그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홍창희(미발표)는 기존의 정서표현성 척도 중 버클리 정서표현성척도(BEQ; Gross 등, 1995)를 평가하여 원래의 척도와는 다른 요인구조가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원래 척도의 요인구조와 다르게 나타난 ‘억제’ 요인으로 명명한 요인2의 경우(문항 예, ‘제 아무리 흥분하거나 당혹스러울지라도 난 겉으로 침착함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등)에 비추어, 외국의 척도를 번안해 사용할 때 요인구조가 달라지고 원래 측정하고자 의도했던 구성개념을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등 타당도를 위협할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내용이라도 문화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고, 정서를 경험하고 표현하는 방식 또한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관점을 반영하고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호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관계지향적인 문화로 강한 정서의 외적 표현을 억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관점(한규석, 2001)과, 정서표현의 억제 특히 부적인 정서를 억제하는 경향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독특한 정신신체질환인 화병으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최상진, 이요행, 1995) 등의 관점에서 볼 때 요인2의 억제요인이 나타나고, 요인1은 정적 및 부정적 정서표현을 함께 포함하는 전반적인 표현성요인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정서경험척도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홍창희(2004)는 우리말의 정서단어로서 적절성과 정서경험의 빈도를 평정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적·부정적 정서단어의 22개 문항의 정서경험척도를 제작하였다. 이 척도의 정적 및 부정적 정서경험간 상호상관은 대학생집단과 일반집단에서 각각 .10, .13의 비교적 독립된 차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경험의 구조가 양극성(bipolar)보다는 단극성(unipolar)임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최근 연구에서 미국을 포함한 서구문화권에서는 정적 및 부정적 정서경험을 서로 대립되는 방식(bipolar ways)으로 경험하나, 한국이나 중국 같은 상호의존적 문화권에서는 변증법적 방식(dialectic ways)으로 경험한다는 주장(Baggiozzi, Young, & Yi, 1999)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즉 하나의 사상이나 사물이 일면적(一面的)인 특성을 지닌다고 보다는 서로 대립하는 속성을 함께 지닌다는 관점으로, 기쁨 같은 정적 정서와 슬픔 같은 부정적 정서를 동시에 지닌다는 견해이다. 외국의 정서경험척도(예,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ale; Watson, Clark, & Tellegen, 1988)의 경우 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간 상관은 유의한 부정적인 상관을 보인 반면, 한국 정서경험척도의 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간 상관은 유의하지는 않으나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는 불가에서 말하는 ‘삶과 죽음은 본래 하나’라는 관점이나, ‘일상의 미운 정 고운 정’의 관점에도 스퍼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척도의 개개 정서단어(예 : 억울

한, 속상한, 후련한 등)에서도 일상의 대인관계에서 겪는 경험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눌리어 마음이 답답하다거나, 불공평한 일을 당하여 속상하고 분한 마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불편하고 괴로운 심정 등이 반영되고 있어 보인다. 더불어 일이 잘 풀리어서 마음이 시원하다든가 가슴에 더부룩하던 것이 내려 시원하다는 경험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외국 정서표현성척도 요인구조의 차이점, 그리고 정서경험에서 외국 정서경험척도와는 다른 요인의 속성 및 정서단어 등을 고려해 보면, 정서표현에서도 정서경험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화적 배경에 따른 정서표현성의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척도개발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서표현성척도의 개발은 일상생활에서 정서표현을 잘 하는 사람의 특징을 알아보는 개방형 설문 결과를 토대로 척도의 예비목록을 작성하였고, 이를 대학생집단에게 실시한 자료를 요인분석하여 최종적으로 16문항으로 이루어진 7점척도의 정서표현성척도를 제작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항-총점간 상관, 각 요인별 내적 합치도 및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알아본 결과, 대학생 및 일반집단 모두에서 내적 일관성 및 시간적 안정성 면에서 신뢰도가 양호하였다. 정서표현성척도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결과, 정서표현을 측정하는 다른 척도들(BEQ, EES)과의 상관을 검토해 보았다. 정서표현성척도를 요인분석한 결과 대학생집단, 동료평정 및 일반집단 모두에서 일관된 3요인 구조가 나타났다. 요인1은 ‘모임에서 나는 눈에 잘 띄는 편이다’, ‘나는 평소 활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활발하다’ 등의 문항으로 ‘활동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2는 ‘누군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면 연민이나 동정심을 많이 느낀다’, ‘사람들은 내가 인정이 많다고 말한다’ 등의 문항으로 ‘연민과 인정’으로 명명하였다. 요인3은 ‘나는 감정을 감추지 못하는 편이다’, ‘나는 느끼는 감정의 표현을 억제하지 않는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표현성’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요인구조는 기존의 연구(예 : Gross 등, 1995)와는 다른 요인구조로 생각되고 요인2의 ‘연민과 인정’요인에서 특히 그렇다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논의할 사항은 일반집단의 요인1의 두 문항(문항5 ‘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활발하다’, 문항13 ‘나는 친구가 많다’)

은 요인2에 더 높은 요인부하를 보였다. 따라서 요인2의 경우 탄력적 사용이 필요해 보이는데, 전체척도의 점수 (composite score)의 사용 시에는 문제되지 않으나 요인 점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상의 연령을 고려하여 일반 집단에서는 이 두 문항을 요인2에 포함시킬 수도 있어 보인다. 요인 2에서 일반집단과 대학생집단간의 차이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사회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회생활에서 관계성과 상호의존성이 중요시되고 강조되는 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상관분석결과 정서표현성의 첫 번째 요인인 '활동성'은 BEQ 및 EES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특히 성격 특성으로서 외향성차원과 높은 상관을 보임으로써 정서표현성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두 번째 요인인 '연민과 인정' 요인 또한 BEQ 및 EES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성격특성으로서 외향성 및 공감차원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표현성'을 측정하는 세 번째 요인도 BEQ 및 EES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외향성 및 공감차원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요인분석 및 상관분석 결과들은 정서표현성척도의 구성타당도를 입증한다고 하겠으며, 개발된 정서표현성척도는 그 신뢰도와 구성타당도가 양호하다고 하겠다.

한편 본 연구1에서 정서표현의 구성개념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지시문(일상생활에서 정서표현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의 경우, 연구대상자의 다의적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예로 '일상생활에서 정서표현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정적 정서든 부정 정서든 표현적인 사람, 긍정적 혹은 적응적인 정서표현을 잘하는 사람, 또는 정서표현을 잘하는 사람의 인상이나 성격특징 등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개방형 지시문의 결과, 얻어진 문항내용은 정서표현 그 자체보다는 정서표현에 영향을 미칠만한 성격특성으로서 예측변인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예로, 본 연구의 제1요인(활동성)은 EPQ와 .70의 상관으로 성격특성의 외향성과 유사하고, 제2요인(연민과 인정)은 '정 많음, 다정'이라는 성격특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1에서 사용한 지시문에 의해 얻어진 척도는 정서표현성척도로서의 내용타당도 문제와, 정서표현성 보다는 성격요인을 반영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가 가능하다.

하지만 본 연구의 주 목적은 한국성인(대학생)이 생각하는 정서표현성의 구성개념을 탐색하여 척도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예, BEQ)처럼 구체적인 지시문을 사용하지 않았고, 정서표현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예측변인)이나 정서표현에 영향 받는 결과요인 등을 고려하지도 않았다. 또한 정서표현성과 성격특성의 두 개념은 인간의 속성에서 엄격히 분리되어 존재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정서표현의 초기 연구에서 King 등(1990)은 성격특성으로서 정서표현성을 측정하고자 시도하였고, Kring 등(1994)도 부정 정서성과 정적 정서성을 비교적 독립적이기 때문에 정적 및 부정 정서표현의 구분 없이 순수하게 표현적 특성을 측정하는 단일차원의 척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추후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서 정서표현과 관련된 요소나 상황, 대상 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 한 가지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의 타당도 검증에 사용된 정서표현성 척도(예 : BEQ, EES)의 경우, 본 연구 필요성에서 언급된 바 외국척도가 한국의 실정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는 모순되지만, 이는 직접 비교 가능한 우리의 정서표현성척도가 없는 상황에서 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및 임상적 의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생각하고 있는 구성개념에 따라 정서표현성척도를 구성하여 제작한 척도로서, 우리의 특성을 반영하는 정서성을 고려했다는 점이다. 즉 본 연구의 주 목적은 한국 성인이 생각하는 정서표현성의 구성개념을 탐색하고 그를 바탕으로 정서표현성척도를 개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정서표현성척도는 그 신뢰도, 내용타당도 및 구성타당도 등 심리측정 속성상 양호한 측정도구라 하겠으나, 대상 연령이 30대, 40대, 50대 등 다양한 연령대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지 못한 점, 임상장면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척도의 유효성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은 추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정서표현성척도는 앞으로 정서표현행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뿐만 아니라, 임상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정서관리훈련 프로그램이나 재활프로그램 등의 초기과정에서 각 개인들

의 정서표현성을 간단히 수량화하고 분류할 수 있는 간편하고 객관적인 도구로 활용이 가능하고, 프로그램개입 후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정서표현은 사회적·대인관계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특히 예의나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의 경우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정서표현의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서은국과 Oishi(2002)는 문화간 주관적인 well-being을 논하면서, 전통적으로 주관적인 well-being에 매우 중요한 심리적 조건의 하나로 일관된 자아정체감(self identity)을 말하고 있다. 모든 개인은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데 그 한 예로 개인이 친구와 있을 때와 직장상사와 있을 때 생각, 느낌 및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서구의 심리학자들은 높은 수준의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상황에 따른 일관된 자기관점을 지니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생각은 개인주의 문화의 역동과는 잘 부합되고, 개인의 심리적 속성(예: 정서)이 자기의 기본원칙이 된다. 하지만 집단주의 문화에서 일상의 주요 관심사는 다른 사람과의 부드럽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며, 사회적 요소(예: 타인의 평가, 사회규범 등)가 개인의 중요한 관심사로 간주된다. 대인간 조화(interpersonal harmony)를 이루기 위해서 개인은 사회적 단서에 매우 민감하고, 다른 사람의 욕구와 기대에 비추어 자신을 조정 또는 적응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민과 인정’ 및 ‘표현성’ 요인은 집단주의문화 구성원으로 여겨지는 우리의 자아정체감의 한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민과 인정’ 요인은 다른 사람과의 공감을 비롯한 대인간 조화의 속성과 관련되고, ‘표현성’ 요인은 감정표현의 조절과 관련된 속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를 강조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평소 관계에서 자신의 정서표현을 조정하거나 억제할 필요가 있고, 또한 자신보다는 타인을 배려하는 특성 등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더불어 최상진, 유승엽(1995)은 한국인의 대인관계에서 가까움과 밀착의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심리내적 경험속성을 정(情)으로 보고, 이러한 정(情)의 본질을 인간의 감정과 같은 속성을 지니는

감정성 요인, 그리고 이해와 포용 및 도와줌과 같은 아껴주는 인간관계성 요인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연민과 인정’ 요인은 이와 관련되고 있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성격특질로서의 정(情)이 많은 사람들은 남에게 정을 많이 느끼거나 경험하거나 주는 사람으로 기술되는데(최상진, 1997), 이들의 특성과 정서표현성 척도와와의 관계 등도 탐색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최근 개발된 다면적 인성검사 II(MMPI-2; 김종술, 한경희, 임지영, 이정흠, 민병배, 문정주, 2005)의 재구성임상척도 중 감정적 색채가 강한 차원을 측정하는 척도인 의기소침척도(Demoralization) 등과의 관련성, 그리고 성격평가질문지(PAI; 김영환, 오상우, 홍상황, 박은영, 2002)의 대인관계 척도 중 대인관계에서 지지적이고 공감적인 정도를 평가하는 온정성척도(WRM)와의 관련성 등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김영환, 오상우, 홍상황, 박은영 (2002). PAI의 임상적 해석. 서울: 학지사.
- 김종술, 한경희, 임지영, 이정흠, 민병배, 문정주 (2005). 다면적 인성검사 II 매뉴얼. 서울: (주) 마음사랑.
- 안신호, 이승혜, 권오식 (1993). 정서의 구조: 한국어 정서단어의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 107-123.
- 안신호, 이승혜, 권오식 (1994). 한국어 정서단어의 분석: 정서단어의 유사성 구조와 정서체험의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8, 150-175.
- 이주일 (1998). 체험정서와 표현정서의 심리적 효과. 미발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주일, 한정원, 황석현, 민경환 (1997). 정서의 체험 및 표현성이 건강과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 117-140.
- 이현수 (2000). 한국판 아이젠크 성격검사 성인용. 서울: 학지사.
- 조공호 (1997). 문화유형과 정서차이: 한국인의 정서이해를 위한 시론. 심리과학, 6, 1-44.
- 최상진 (1997). 한국인의 심리특성. 한국심리학회(편) 현대심리학의 이해(695-776). 서울: 학문사.
- 최상진, 유승엽 (1995). 정(情)의 심리적 구조에 대한 경험적

- 분석. 국제여성연구소 연구논총, 중앙대학교 제5권 1호, 107-132.
- 최상진, 이요행 (1995). 한국인 환병의 심리학적 개념과 시도. 한국심리학회(편) 연차대회 학술발표 논문집, 327-338.
- 한규석 (2001).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 학지사, 455-457.
- 한정원 (1997). 정서표현성이 건강 및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미발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홍세희 (2001). 임상심리학 이론의 경험적 검증을 위한 최근 연구방법론 :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매개모형과 잠재평균모형의 분석. 임상심리학회 3월 워크샵자료집, 임상심리학회.
- 홍창희 (2004). 한국 정서경험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3, 771-787.
- 홍창희 (미발표). 한국 성인의 정서표현성 구성요인의 탐색 및 척도개발. 미발표 연구자료.
- Allport, G. W., & Vernon, P. E. (1933). *Studies in expressive movement*. New York : Macmillan.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Washington, DC : Author.
- Andreasen, N. C., Olsen, S. A., Dennert, J. W., & Smith, M. R. (1982). Ventricular enlargement in schizophrenia : Relation to positive and negative symptom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 292-296.
- Bagozzi, R. P., Nancy Wong, & Youjae Yi. (1999). The role of culture and gend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Cognition and Emotion*, 13, 641-672.
- Buck, R., Savin, V. J., Miller, R., & Caul, W. F. (1972). Nonverbal communication of affect in huma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3, 362-371.
- Buss, A. H., Plomin, R. (1975). *A temperament theory of personality*. New York : Wiley.
- Ekman, P., Friesen, W. V., & Ellsworth, P. (1972). *Emotion in the human face : Guidelines for research and an integration of findings*. Elmsford, NY : Pergamon Press.
- Ewart, C. K., & Kolodner, K. B. (1994). Negative affect, gender, and expressive style predict elevated ambulatory blood pressure in adolesc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596-605.
- Eysenck, H. J., & Eysenck, S. B. (1975).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San Diego : Edits/Educational and Industrial Testing Service.
- Flack, W. F. Jr., Laird, J. D., & Cavallaro, L. A. (1999). Emotional expression and feeling in schizophrenia : Effects of specific expressive behaviors on emotional experience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5, 1-20.
- Gross, J. J. (1998). The emerging field of emotion regulation : An integrative review.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 271-299.
- Gross, J. J., & John, O. P. (1995). Facets of emotional expressivity : Three self-report factors and their correlat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9, 555-568.
- Gross, J. J., & John, O. P. (1997). Revealing feelings : Facets of emotional expressivity in self-reports, peer ratings, an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435-448.
- Gross, J. J., & John, O. P. (1998). Mapping the domain of emotional expressivity : Multi-method evidence for a hierarchical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70-191.
- Gross, J. J., John, O. P., & Richards, J. M. (2000). The dissociation of emotion expression from emotion experience. A personality perspectiv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 712-726.
- Gross, J. J., & Levenson, R. W. (1997). Hiding feelings : The acute effects of inhibiting negative and positive emo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 95-103.
- Halberstadt, A. G., Cassidy, J., Stifter, C. A., Parke, R. D., & Fox, N. A. (1995). Self-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context : Psychometric support for a

- new measure. *Psychological Assessment*, 7, 93-103.
- Izard, C. E. (1971). *The face of emotion*. New York : Appleton-Century-Crofts.
-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64-877.
- Kring, A. M., & Neale, J. M. (1996). Do schizophrenic patients show a disjunctive relationship among expressive, experiential, and psychophysiological components of emo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 249-257.
- Kring, A. M., Smith, D. A., & Neale, J. M. (1994). Individual differences in dispositional expressiveness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emotional expressivity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934-949.
- Larsen, R. J., & Diener, E. (1987). Affect intensity as an individual difference characteristic : A review.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1, 1-39.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rkus, H. R., & Kitayama, S. (1994).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self and emotion : Implications for social behavior. In S. Kitayama, & H. R. Markus (Eds.), *Emotion and culture : Empirical investigations of mutual influence*(pp. 89-130).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ivkin, I. D. (2000). *The effects of emotional expression on adjustment to stressful events*. University of California : Los Angeles, doctoral dissertation.
- Salovey, P., Mayer, J. D., Goleman, S. L., Turvey, C., & Palfai, T. P. (1995). *Emotional attention, clarity, and repair : Exploring emotional inhibition, disclosure, and health*(pp.125-154).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nyder, M. (1974). The self-monitoring of exp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0, 526-537.
- Snyder, M., & Gangestad, S. (1986). On the nature of self-monitoring : Matters of assessment, matters of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25-139.
- Suh, E. M., & Oishi, S.(2002). Subjective well-being across cultures. In W. J. Lonner, D. L. Dinnel, S. A. Hayes, & D. N. Sattler(Eds.), *Online Readings in Psychology and Culture*(Unit 7, Chapter 1), Center for Cross-Cultural Research,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Bellingham, Washington USA.
- Tellegen, A. (1985). Structures of mood and personality and their relevance to assessing anxiety, with an emphasis on self-report. In A. H. Tuma & J. D. Maser(Eds.). *Anxiety and the anxiety disorders*(pp. 681-706). Hillsdale, NJ : Erlbaum.
- Tellegen, A., Lykken, D. T., Bouchard, T. J., Wilcox, K. J., Segal, N. L., & Rich, S. (1988). Personality similarity in twins reared apart and togeth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31-1039.
- Tomkins, S. S. (1981). The guest for primary motives : Biography and autobiography of an ide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306-329.
- Watson, D., Clark, L. A. (1991). Self-versus peer ratings of specific emotional traits : Evidence of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927-940.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 The PANAS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63-1070.

Development and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Emotional Expressivity Scale

ChangHee Hong

NaJu National Hospital

GyuSeog Han

Chonnam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structure of emotional expressivity among Korean adults and to construct the emotional expressivity scale (KEES), and to examine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A pool of preliminary items were selected, based on the item analysis of an open questionnaire which was to search the characteristics of a highly emotional expressive person, and administered to 258 undergraduates and 105 normal adults, and KEES with 16 items was constructed using factor analyses on the data. KEES was highly reliable in terms of internal consistency and test-retest reliability. Factor analyses revealed that KEES had consistently three factors labeled 'Activity', 'Yeon-Min and In-Jeong', and 'Expressivity'. And KEES was found to be highly correlated with other expressivity scales and personality variables, hence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KEES had good construct validity. Also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nd future directions of study were suggested.

Keywords: Emotional expression; emotional expressivity; factor analysis

원고접수 : 2007년 10월 22일

심사통과 : 2007년 11월 9일

